은막 스타들의 영화 같은 삶, 삶 같은 영화

조종현 전집

이동순 엮음

조종현 선생 문학인생 조망

고흥 출신 조종현(1906~1989)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문인이다. 승려이자 동화작가이며 시인이었던 그는 일제시대 불교의 개혁과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던 지식인이었다. 소설가 조정래의 부친인 그는 선암사의 법맥을 이은 학승이자 강원의 강사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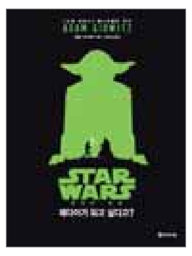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가 펴낸 '조종현 전집'은 모두 2권으로 '아동문학·시조편', '산문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1권에는 조선일보에 발표한 첫 동요 '엄마숨바꼭질' 외에 58편과 아동문학 평론 2편과 동요극 1편도 수록돼 있다. 시조는 첫 작품인 '정유화' 등 모두 332편이 담겨 있으며 발표 당시의 원문이 실려 있다.

2권 산문편에는 총 53편이 담겨 있으며 불교개혁운동에 관련된 글, 교훈적인 글 등이 정리돼 있다. 책의 말미에는 생애 연보와 작품 연보가 수록돼 있어 조종현의 문학인생을 조망할 수 있게 했다.

〈소명출판·1권 4만2000원·2권 3만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스타워즈 …

애덤 기드위츠 지음

영화보다 재밌는 소설 스타워즈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를 뛰어넘어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이 된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1977년 개봉 후 지금까지 48조 5000억원을 벌어들였다. 바로 '스타워즈'이야기다. 이 '스타워즈'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와 만나 장편소설로 출간됐다.

애덤 기드위츠가 펴낸 '스타워즈-제국의 역습'은 스타워즈를 재치있게 해석한다. '제다이가 되고 싶다고?'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소설은 작가적 상상력을 가미해 영화보다 더 매력적인 '스타워즈'를 그려냈다. 제다이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가상의 조직으로 은하계의 평화를 지키는 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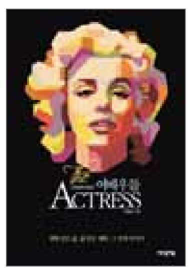
책에는 영화 속 주요 캐릭터의 비주얼과 컨셉을 구현한 아티스트들의 컬러 일러스트도 곁들여 보는 재미가 담겨 있다. 여기에 뻔뻔하지만 유머러스하게 전개되는 2인칭 시점의 문체가 맛깔스러움을 더해준다.

〈문학수첩·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여배우들

한창호 지음



바바라 스탠윅, 베티 데이비스, 조앤 베넷,마릴린 먼로, 제인 폰다(왼쪽부터)

"가장 적은 제작비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배우의 옷을 벗기는 것이다!"

이 말은 영화계에서는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흥행공식이다. 워너브라더스, 컬럼비아 같은 세계적인 영화사들은 초기에 B급 영화들로 자본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물론 B급 영화란 여배우의 관능에 기댄 작품을 말한다.

오늘날 영화가 인기 대중예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배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성들은 영화를 통해 여배우와의 로맨스를 꿈꾸지만 여성들은 그 여배우를 꿈꾼다. 그만큼 여배우는 남성이나 여성 관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존재였다.

마릴린 먼로, 잉그리드 버그먼, 비비안 리, 오드리 햅번, 이자벨 아자니, 그레이스 켈리, 제인 폰다…. 이들은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영화계의 레전드 여배우들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영화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이를 작품에 투영해 '삶 같은 영화'를 찍었다.

여배우들의 삶과 영화를 매개로 그들의 정체성을 조명한 책이 나왔다. 영화평론가이자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의 필진인 한창호 씨가 펴낸 '여배우들'은 영화 역사의 증인인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는 2000년대 초반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에서 영화학을 전공하는 중에 맞닥뜨려야 했던 '오리엔탈리즘'이 글을 쓰게 된 계기라고 한다. 부연하자면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非)백인의 정체성을 일컫는다. 미셸 푸코의 '시선이 곧 권력'이라는 말을 인종적, 지정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말이다.

그 즈음 저자는 "여배우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그녀가 원한 곳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또한 금발 백인도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이방인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대체로 여배우들은 세상의 시선에 맞춰 이미지를 연기했다. 대중의 시선이 푸코의 말처럼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했다는 의미다.

"마릴린 먼로는 그렇게도 하기 싫었던 '금발 백치' 역을 경력 내내 반복해야 했다. 그것이 남성들은 물론 많은 여성들까지도 원했던 먼로의 자리, 곧 그녀의 스타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먼로는 자기가 원치 않았던 위치에 있을 때, 더욱 사랑받았다. 나는 그것을 '타자의 자리'라고 봤다."

책에 실린 글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년 간 '씨네21'에 연재했던 '한창호의 오! 마돈나'를 묶은 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는 '타자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여배우들의 삶을 조명한다.

대중이 여배우를 통해 갈구했던 대표적인 시선은 '악녀'의 이미지다. '이중배상'(1944)에서 바바라 스탠윅은 '나쁜 여자'로 등장했다. 그녀는 돈을 위해 남편과 애인을 배신하는 금발의 요부 연기를 펼쳤다.

베티 데이비스도 바바라 스탠윅을 능가하는 팜므파탈의 레전드였다. '위험한'(1935)에서 광기로 가득한 캐릭터를 연기해 아카데미주연상을 받았다. 이 두 여배우 이후 팜므파탈은 영화 흥행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여배우들의 대체 불가능한 이미지는 바로 '관능'이다. 악녀들의 가공할 무기는 바로 섹슈얼리티였다. '맨 헌트'(1941)와 '창가의 여인'(1944)에 출연했던 조앤 베넷은 "어둡고 위험한 여성"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거장 앨프레드 히치콕은 그레이스 켈리와의 조우를 통해 '성적 서스펜스'라는 코드를 발견했다. 우아함의 대명사였던 그레이스 켈리는 '이창' '다이얼 M을 돌려라' 등에서 감춰진 성적 매력을 마음껏 발산한다.

그러나 모든 여배우들이 대중의 시선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다. 스타가 되고 나서는 과감하게 사회적 행동을 전개한 이도 있었다. 제인 폰다는 영화사를 통틀어 진보세력의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그녀는 미국의 월남전 종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물론 "철없는 여성 딴따라의 순간적인 충동"이라는 거센 비난을 듣기도 했다.

그렇다면 여배우란 어떤 존재인가? 저자가 던진 화두에 대한 답은 간단해 보인다. 어쩌면 "여배우는 배우다"라는 명제만큼 적확한 표현은 없을 듯하다. 그렇다. 그들은 배우다.

〈어바웃어북·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조선 지식인 책상에 올라 온 안경·망원경·거울 이야기

조선에 온 서양물건들

강명관 지음

조선 후기에 안경, 망원경, 유리거울, 자명종, 양금 등 다섯 가지 서양 물건이 들어왔다. 이 사물들의 공통점은 서양 근대 문명사에서 의의가 크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조선 후기 사람들의 서양인식과 관련한 사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이들 물건은 근대 사상 문화와 긴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이들 물건 속에 함축되어 조선으로 건너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다.

엄밀한 텍스트 분석과 날카로운 해석으로 고전과 역사의 이면을 보여주는 한문학자 강명관 부산대 교수가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을 펴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조선 지식인의 책상에 올라온 서양 물건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펼쳐 보인다.

19세기 말, 조선은 국제적 감각을 잃고 고립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한반도 바깥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서양 물건들을 들여왔을까?

저자는 엄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서양 물건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파헤친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신선하다. 이덕무는 '사소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군자가 거울을 보고 의관을 정제하고 시선을 높게 하는 것은, 용모를 예쁘게 가다듬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간혹 거울을 손에서 떼지 않고 눈썹과 수염을 매만지며 날마다 곱게 꾸미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부녀자의 행동이다."

저자는 다섯 가지 물건이 서양의 근대 문명을 함축하고 있는 만큼, 각 물건 배후에 존재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도 기술한다. 조선의 지식인이 서양 과학을 토대로 성리학적 세계관과 당시 사회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주목한다.

〈휴머니스트·1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돈 안들이고 집에서 편하게 오페라 즐기기

오페라 홀릭

이보경 지음

오페라는 '어려운' 고전 예술이다? 접근하기 어렵고 사치스러운 장르다?

오페라의 다채로운 매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돈 안 들이고' 편하게 오페라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오페라 홀릭'이 출간됐다. MBC 이보경 기자가 아프고 힘들었던 4년여의 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150편이 넘는 오페라를 감상한 종합적이고도 열정적인 '인터넷오페라'에 대한 보고서다.

저자는 공연장까지 가는 수고와 번거로움, 금전적인 지불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오페라를 즐기라고 이야기한다. 유튜브나 중국의 유쿠 등 인터넷을 통해 오페라들을 한 편 두 편 접하다 보면, 어렵고 조금은 괴상하게 느껴지던 장면들이 어느새 이해되고 그것에 빠져드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책은 문화적 차이와 기본적인 지식 부족으로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던 오페라의 세계로 친절하게 이끌어준다.

〈창해·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